

# COVID-19와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A Study on COVID-19 and Changes in Life

Na-Rae Ba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재난 후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재난 이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위기개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 이전과 이후 삶의 변화는 대상에 따라 달랐다. COVID-19는 분명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 개입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현재 어려움을 평가하여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반응을 파악하여 그들의 분노와 불안 등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COVID-19, 삶의 질, 건강, 위기개입, 심리사회적요인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study on COVID-19 and human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eal what changes are made in people's lives after a disaster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crisis intervention research to effectively improve life satisfaction after a disaster to all subjects living in this era. As a result of the study, changes in life before and after COVID-19 differed depending on the subject. COVID-19 is certainly a major disaster for our society. In order to wisely cope with such a disaster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a crisis intervention program is urgently needed. It can be said that a program is required to immediately focus on the crisis situation according to the target and evaluate the current difficulties to understand the client's response to the situation and relieve their feelings such as anger and anxiety.

**Key Words** : COVID-19, Quality of Life, Health, Crisis Interventio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 1. 서론

2019년 12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은 큰 재난이 나타났다. 그것은 COVID-19 전염병이다. COVID-19의 정식 명칭은 Corona Virus Disease-19 이다. COVID-19 바이러스는 치명성이 높은 전염병으로 전 세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전대 미문의 전염병인 COVID-19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전 인류에게 심리사회적인 위축을 가져 왔다. COVID-19는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게 대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경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COVID-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2월26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12월5일, 우리 국민 중 접종 완료자는 80.51%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victory0302@hanmail.net)

아프리카 대륙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한 후 강력한 감염속도와 내성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Nu.B.1.1.529) 바이러스가 한국에 12월1일 감염자가 확인되어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수준으로 글로벌 전염병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확산 되어 감에 따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인간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COVID-19라는 재난 상황을 통해 재난 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재난 이후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위기 개입에 대한 다양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논문을 설계하게 되었다.

## 2. 이론적 배경

### 2.1 COVID-19와 위기유형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안정을 위협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 그러나 COVID-19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처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위기의 유형에는 발달적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위기, 환경적위기가 있다[1]. 발달적 위기는 에릭슨이 말한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발달과업상의 위기를 말한다. 상황적 위기는 사람들이 통제하거나 예견할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그 충격은 매우 강렬하며 때때로 파괴력은 엄청난 사건이다. 상황적 위기의 예로는 자동차 사고, 실직, 갑작스러운 질병, 죽음 등[12]이다. 실존적 위기는 인간의 본질적인 궁극함에서 발생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나간다. 혹은 책임감이나 독립성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존적 위기는 과거와 비교 하였을 때,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때 경험하게 되는 위기이다. 예로는 중년 여성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녀들의 어린시절과 달리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과거처럼 의미가 없어지고, 그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위기이다. 환경적 위기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에 자연이나 인간이 일으킨 재해가 덮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위기

이다. 환경적 위기는 인간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잘못으로 환경이 망가지면서 그 결과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환경적 위기의 예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산불, 전염병 등이 해당된다. 위기의 유형을 살펴본바, COVID-19는 환경적 위기에 해당된다. 인간이 책임감 없이 저지르게 된 환경훼손이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체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큰 재해로 다가오고 있다.

### 2.2 COVID-19와 위기개입단계

WHO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는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인체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넣었다[2]. COVID-19 바이러스는 변이를 진행하며, 2020년 10월에 영국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양산되었고, 2021년 12월에는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13] 강력한 감염속도와 내성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며 다시 팬데믹 공포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COVID-19의 합의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COVID-19(2019년12월) 이전에도 2002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일명: 사스), 2009년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일명: 메르스)[2]까지 감염성 질환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전 세계를 질병의 공포에 몰아 넣었으나,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는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양산하며 전 세계를 코로나 첫다운제에 들어가게 하였다[11]. 그렇다면 우리는 COVID-19상황에서 위기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골란(N. Golan)은 1978년에 위기발달단계를 위협사건, 취약단계, 위기 촉발요인 발생, 실제 위기 단계, 회복 재통합단계의 다섯 단계로 설명하였다[3]. 첫 번째 위협사건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 등이 내부적인 압력으로 다가오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외부의 스트레스가 연속적 사건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건강상의 위기, 재산상의 위기, 가족관계상의 위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취약단계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위협사건을 인지하고 경험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위기상황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문제해결 기제를 적용해보고 사용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셋째, 위기축발 요인발생 단계인데, 위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며 삶의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실제 위기 단계는 개인의 항상성 기제가 무너지면서 긴장이 극에 달하고 불균형 속에서의 위기 상태가 4주~6주간 지속된다. 넷째, 회복 혹은 재통합 단계는 적절한 위기 개입이 이루어져 긴장과 불안이 낮아지며 개인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회복단계에서는 긍정적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행동유형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회복단계에 부정적인 경험과 위기를 지속하는 경우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위기상황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이 더 높아서 역기능성으로 발전 할 수 있다.

### 2.3 COVID-19와 위기개입목표

Lydia Rapoport(1970)는 위기개입의 목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 하였다[3-4]. 첫째, 위기개입은 위기로 나타난 혹은 발생 된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둘째, 위기개입은 위기를 경험하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셋째, 개선을 가진 위기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를 불균형 상태로 만든 촉발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위기완화나 치료를 위해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과 치료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스트레스를 과거의 생활상의 경험과 갈등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 여섯째, 클라이언트가 위기개입 이후 긍정적인 새로운 인지상태를 유지 할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적응적 대처 방식을 개발함이 필요하다.

### 2.4 COVID-19와 삶의 질

COVID-19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전희원 외[5]는 COVID-19로 인한 나라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2019년에 비해 2020년도의 삶의 질은 낮아졌고,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는 더 큰 폭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COVID-19로 인하여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며,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나라의 경우 삶의 질은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해임

외[6]는 COVID-19와 사람들의 건강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COVID-19 발생 전과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요인과 전 영역에서 전염병 이후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하였으며 특히 정신적 건강요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능과 정신건강영역에서 삶의 질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하성규 외[7]는 COVID-19가 사람들 각 개체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연령대 중심으로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COVID-19 이후 사람들의 우울감은 증가하였고 삶의 질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보다 미혼이 COVID-19로 인한 우울감이 증가하고 삶의 질은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현경 [8]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은 COVID-19가 지속되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업과 진로 계획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가족과의 소통과 가족의 건강성이 위기감과 스트레스는 낮추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권혜경 외[9]는 COVID-19 두려움과 불안, 우울이 노년기의 건강 관련요인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COVID-19의 두려움과 불안, 우울이 높을 수록 노년기의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이[10]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COVID-19 팬데믹으로 나타난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COVID-19 전염병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연구한 수 많은 연구[5-15]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COVID-19는 우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임은 명확히 드러났고 아울러 신체,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2021년9월1일 -2021년10월5일까지이며, 대상을 개별로 만나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반구조적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COVID-19

환경 속에서 두려움은 무엇이였습니까?', 'COVID-19로 지역사회에서의 위기개입지원은 어떠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면담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 면담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녹음하였다. 이후 구술 내용을 전사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사례 1은 45세 기혼여성으로 2명의 자녀와 남편과 거주하고 있다.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사례 2는 58세 기혼남성으로 1명의 자녀와 부인과 거주하고 있다. 직업은 자영업자이다. 사례 3은 70세 여성으로 2명의 자녀가 있으며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은 없다.

### 4.2 COVID-19 이전과 이후 삶의 변화

[사례1] 코로나19 전에는 학교에서 늘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3 담임이라 학생들을 교내에서 챙기랴 행정일 하랴 매우 바빴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처음에는 편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수업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대면수업 시에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지도, 관리하니까 모든 것이 쉬웠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영상으로 전화로 관리를 하니 뭔가 관리가 잘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 업무는 코로나 전과 후나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반복이었지요. 그런데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 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해보면 그렇게 낮아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례2] 모든 일 들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었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생계가 막연하지요. 세상의 모든 일 들이 정지된 듯한 느낌입니다. 다른 일을 구해야 하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막연했습니다. 삶의 질 수준을 1-10까지 수준으로 말하면 2나 3 정도일 겁니다. 지금도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 갔으면 합니다.

[사례3] 코로나19 이후 지역에는 제일 처음 스포츠

센터가 문을 닫더군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으니 어디 갈 때도 없고 답답했지요. 친구들도 코로나가 무서워서인지 만나자 약속도 없고. 매일 집안에서 TV만 보고 있었지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자 스포츠센터가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안좋은 것은 없어요. 연금이 나오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코로나전과 후나 똑같아요. 다만, 사회활동, 만남,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였고 힘들어요.

### 4.3 COVID-19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

[사례1]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면 어쩌나,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무서움이 가장 컸습니다. 학교에 근무해야 하는데 혹여라도 전염병이 걸리면 낙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직장사람들에게 무척 미안하고 죄스러울 것 같았어요. 마스크의 일상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고, 사람과 접촉은 줄이고 할수 있는 국가가 말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었습니다.

[사례2]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고, 국가에서도 위험하다고 만나서 하는 일들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수가 없지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요.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언제나 잠잠해 질지.

[사례3] 나이가 있어서 건강 걱정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방송에서 알려주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 걱정을 많이 했지요. 지금은 마스크 구매는 어렵지 않아 다행이고, 어디를 가나 손소독제, 열체온기 등으로 체크를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요.

### 4.4 COVID-19 상황 속에서의 지역사회의 위기개입

[사례1] 코로나로 아이들은 학교를 안가도, 저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였지요. 아이들 혼자 집에 두고 갈 수도 없고 친정, 시댁 어른들께 아이들 맡기고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걸음이 무겁던지요.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전염병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일하는 엄마를 위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위기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저는 코로나에도 근무는 계속하는데 아이를 갈곳이 없어요.

[사례2] 재난지원금이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가가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나 지원금을 배분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요.

[사례3]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백신 맞으라고 해서 서둘러 다녀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없었습니다. 아. 마스크 나왔을 때 동장이 돌아다니면서 전달 해 주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상황을 처음이라 다 같이 조심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센터도 문을 닫고, 지역문화센터도 문을 닫고, 공원도 폐쇄되고, 집 밖에 공공장소는 모두 폐쇄 되어서 갈 곳이 없었지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나 혼자 아파트 돌레를 몇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지요.

##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가 끼친 인간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재난 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재난 이후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우며 위기개입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OVID-19를 경험한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1년9월1일-2021년10월5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를 각각 만나서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OVID-19 이전과 이후 삶의 비교를 하였을 때 직업유무에 따라 삶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사례1 정규직 대상자의 경우, 삶의 변화에 대해 업무상의 변화는 컸고, 자녀 양육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공적 돌봄공백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였다. 사례2 자영업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 수입감소로 전반적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으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상태를 보였다. 사례3 은퇴한 노년 대상자의 경우 경제적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지역 사회내의 다양한 커뮤니티센터의 폐쇄로 불안정한 소통 상태가 정서적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OVID-19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은 사례1 정규직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도 두렵지만, 감염자가 되어 직장 혹은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까 두려웠다고 했다. 더 나아가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사례2 자영업 대상자의 경우, 진행되던 모든 일들이 중단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 경제적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사례3 은퇴한 노년 대상자의 경우, COVID-19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라는 다양한 대중매체들의 일관되지 않은 정보에 혼란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D-19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위기개입을 살펴본 결과, 사례1 정규직 대상자의 경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자녀돌봄을 위한 공적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사례2 자영업 대상자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사례3 은퇴한 노년 대상자의 경우, COVID-19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확한 정보와 안내로 고령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COVID-19는 분명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 개입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현재 어려움을 평가하여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반응을 파악하여 그들의 분노와 불안 등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수 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해석이나 직면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위기개입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닦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선제 대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양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전문가들이 재난 상황에서 위기개입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 기초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자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1] J. M. Yoon. (1996). Theory and Practice of Crisis Counseling. *The Journal of SungKongHoe University*, 9, 99-122.
- [2] O. S. Lee & J. H. Lim. (2021).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479-488.  
DOI : 10.14400/JDC.2021.19.5.479
- [3] H. S. Jeon. (2017). A Family Bereaved by Suicide: Applying the Crisis Intervention Model and Structural Family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25(2), 375-400.  
DOI : 10.21479/kaft.2017.25.2.375
- [4] S. J. Kim. (2015).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Therapy as Suicidal Crisis Intervention.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73, 1-30.  
UCI : G704-000875.2015.73.006.
- [5] H. W. Jeon & H. C. Lee & Suk. Joon. Yun & H. J. Lee. (2021). Factor of Quality of Life during COVID-19 era among 69 countri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7(3), 59-70.  
DOI : 10.22900/kphr.2021.47.3.006
- [6] H. E. Lee & S. J. Kang.(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0(3), 247-259.  
DOI : 10.23949/kjpe.2021.5.60.3.18
- [7] S. K. Ha, H. S. Lee & H. Y. Park. (2021). Impact of COVID-19 on Individual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cusing on Differences by Age Group. *Therapeutic Science for Neurorehabilitation*, 10(3), 111-122.  
DOI : 10.22683/tsnr.2021.10.3.111
- [8] H. K. Kim. (2021). The Effect of Stress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on the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Health.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2(3), 17-27.  
DOI : 10.35133/kssche.20210831.02
- [9] H. K. Kwon & M. H. Seong. (2021). Effects of COVID-19 Fear, Anxiety, and Depress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4), 1303-1318.
- [10] S. E. Kim. (2020). A convergence study of stress caused by the epidemic of COVID-19,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6), 423-431.  
DOI : 10.15207/JKCS.2020.11.6.423
- [11] N. R. Bae & J. W. Kim. (2021). Study on Experienc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1), 301-310.  
DOI : 10.15207/JKCS.2021.12.11.301
- [12] K. R. Han. (2021). Changes in Elder's Lives and Death by COVID-19.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33, 171-191.  
DOI : 10.15801/je.1.133.202106.171
- [13] D. H. Lee, Y. J. Kim, D. H. Kim, H. H. Whang, S. G. Nam & J. Y. Kim. (2020).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2119-2156.
- [14] S. M. An & H. A. Kim. (2021). A Concept Analysis of subject well-being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0(2), 171-183.
- [15] S. H. Hong. (2021). An Exploratory Study of Daily Life and Coping Behaviors Since the Onset of COVID-19: Data from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9(2), 47-61.  
DOI : 10.7466/JFBL.2021.39.2.47

배 나 래(Na-Rae Bae)

[정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가족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복지융합  
· E-Mail : victory0302@kycu.ac.kr